

「펫보험 활성화 세미나」

축 사

2023. 4. 28.(금)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I .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과 보험의 역할 강화」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런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보험연구원과,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수의사, 생·손보, 반려동물 등 관련 단체,
전문가, 소비자단체,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분들께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도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업권과
반려동물 산업 관계자·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세미나가 개최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펫보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상황인 만큼,
정부와 금융·산업 관계자가 함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야 하겠습니다.

II. 펫보험 현황과 진단

최근 반려동물(개, 고양이 기준) 규모는
약 800만 마리*로 증가하였고,
고령화, 1인가구 증가 추세와 더불어
코로나 19 이후 “팬데믹 펄피(Pandemic puppy)”
라는 말이 생길 만큼,
그 증가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반려동물(개, 고양이) : '18년 635만 마리 → '22년 799만 마리 (추산)
(농림축산식품부,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中)

그만큼 반려인들의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은 커지고 있으나,
양육비 및 치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펫보험이 건강관리, 진료비 지출 수준 등을 보장하면
반려동물 양육비·진료비 경감과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가입률이 1%에 미치지 못해
아직까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동물병원 진료항목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병원별 진료비 편차가 큰 상황이며,

진료기록부 등을 제공하는 병원이 적고
반려동물 등록률도 높지 않아
반려인에게 적합한 보험상품 개발에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Ⅲ.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전략

펫보험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편리한 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차원에서의
관련 인프라 구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려동물 등록률 및 유효성을 높여 나가고
진료항목 등도 개선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및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관련 체계를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펫보험이
원활하게 굴러가도록 하는 두 바퀴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물병원”과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의
긴밀한 협업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와 제휴된 동물병원 등에서 One-stop 으로
간편하게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보험도 가입하며,
진료비 청구서류도 전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한층 편리해 질 것입니다.

소비자는 본인과 반려동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저렴한 보험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동물병원과 관련 산업계는
펫 산업 시장 확대에 따른
의료 및 관련 물품·서비스 수요 증가를 통해
수익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보험업계와 동물병원이 제휴 등을 통해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방향을 포함하여
“펫보험 활성화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조속히 발표할 예정입니다.

IV. 맺음말

“우리 모두를 합한 것보다 현명한 사람은 없다”

(None of us is as smart as All of us)

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의업계, 반려동물 산업계, 보험업계의

집단지성을 잘 활용한다면,

“펫보험 활성화” 라는 긴 여정의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도 여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펫보험 활성화 TF」를

충실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수의업계, 보험업계,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에서도

펫보험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